



천륜 막았던 철조망 탐방로 ‘활짝’ 강제노역 가마터는 ‘힐링의 터’로

눈 치유-열린공간 변신 제비선창·탈출 감시도로 등 소통·만남의 장으로 탈바꿈 소록도병원 “전시관 활용도”

국립소록도병원 내 한센인들의 인권 탄압 상징시설로 알려졌던 제비선창(부두)·수탄장(懲場: 근심과 탄식의 공간) 등 각종 시설물이 한센인들의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들 시설물이 과거 한센인들의 노동 착취·인권탄압 등 차별을 위한 격리된 공간이었다면 현재는 한센인을 포함한 관광객들을 위한 심리치료 및 관광객 탐방로 등 열린 공간으로서 활용되면서 소통과 만남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2일 국립소록도병원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제비선창과 중앙공원 내 가마터·수탄장·탈출 감시도로 등은 한센인들의 수난과 관련된 시설물로, 현재 한센인은 물론 일반 관광객들의 힐링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직원과 한센인지대를 경계 짓기 위해 철조망이 설치돼 있던 너비 5m의 수탄장은 관광객 주요 탐방로로 이용되고 있다. 옛 수탄장은 소록도 병상의 부모와 보육소에서 생활하던 자식들이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장소로 이용됐는데, 당국은 한센병이 전염된다는 이유로 경계선에 철조망을 둘러쳐 천륜을 인위적으로 막았었다.

중앙공원(1940년 조성) 내 가마터는 한센인들의 노동력을 강제로 착취하는 대표적 공간 중 하나였다. 한센인들은 매년 30만 장의 벽돌 등을 이 가마에서 생산했는데, 정해진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강제

노역에 동원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가마터는 현재 사라지고 없으며 이곳엔 조약돌로 만든 십자가 예수상(길이 30m·너비 2m 가량)이 들어서 있다. 소록도 내 최고의 힐링 공간으로 꼽히는 주요 관광지다.

차별의 대명사로 불리던 제비선창장은 폐쇄된 지 오래다. 당시 소록도엔 일제강점기시대와 제비선창 등 2개의 선창장이 있었는데, 일변지는 직원 전용으로 한센인들은 아예 이용할 수 없었다. 제비선창은 한마디로 한센인 전용 선창장인 셈이다.

국립소록도병원 측은 과거 제비선창의 의미를 담아 수탄장과 선창 등을 연결하는 탐방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센인 재소자 전용 교도소였던 소록도 내 옛 순천교도소 뒷편에 위치한 탈출감시도로는 ‘치유의 길’로 명칭을 바꾼 뒤 한센인들의 치유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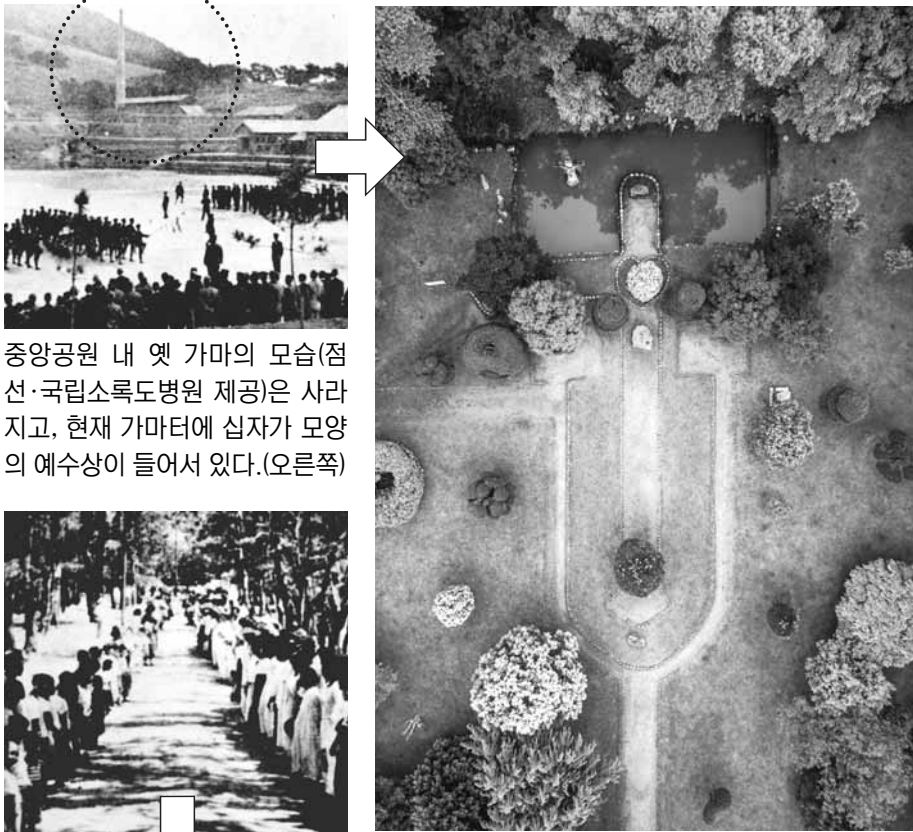
국립소록도병원 측은 감금실·검시실·동대 등 한센인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전시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센인들의 굴곡진 역사는 잊지 않되, 이들 시설물을 역사·인권·생태·문화가 살아 숨 쉬는 힐링공간으로 만들어 한센인들이 아픈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센인 박모(78)씨는 “수탄장을 지나다 보면 지금도 눈시울이 붉혀진다”면서 “진정한 치유는 우리가 겪은 굴곡진 역사를 잊지 않고,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고흥=주경자기자 gjuu@

사진=김진수기자 jeans@



관객 주요 탐방로로 이용 중인 국립소록도병원 입구 수탄장 모습. 위쪽은 병상의 부모와 보육소에서 생활하던 자식들이 만남을 위해 도열한 모습.

전남대병원 정명호·윤택림 교수팀

뼈·혈관 재생 촉진 펩타이드 개발

美 특허...심혈관 질환 골절 등 치료 청신호

전남대병원 심혈관계 융합연구센터 정명호·윤택림(현 병원장)·김형근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뼈와 혈관의 재생을 동시에 촉진하는 펩타이드(Peptide)를 개발, 최근 미국에 특허등록했다.



정명호 교수 윤택림 병원장

이번에 개발된 펩타이드는 ‘골 형성 및 혈관신생 촉진용 펩타이드(Bone Forming Peptide 4·이하 BFP 4)’로서 혈관재생과 골 재생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연구 성과다.

펩타이드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결합돼 있는 것을 말하며, BFP 4는 15개의 아미노산이 결합돼 있다. 보통 소수의 아미노산이 연결된 형태를 펩타이드라 부르며 많은 아미노산이 연결된 형태를 단백질로 부른다.

BFP 4가 주목받는 이유는 심혈관계 질환에 뒤따르는 골절 등의 치료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혈액순환이 정상적이지 않은 심혈관계 질환자들 중 골절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장골동맥 이하 하지혈관 부위의 혈관 폐쇄가 발생하는 환자들도 골절이 동반되고 있어 ‘BFP 4’ 개발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연구팀은 “BFP 4는 향후 골절환자 및 인공관절 치환술 환자 치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의 펩타이드에 비해 가격도 저렴해 환자들의 경제 부담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BFP 4’를 지난달 19일 미국에 전남대병원 이름으로 특허등록(등록번호 US 9,238,055 B2)했다.

이는 그동안 연구개발 성과를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남대병원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인 성과로 해석된다.

전남대병원 연구팀은 오랜 연구와 그 실적으로 정평나 있다. 현재 전남대병원장이자 심혈관계 융합연구 과제의 3총화 책임자를 맡고 있는 윤택림 교수(정형외과)는 오랜 연구를 통해 골 형성에 특이적인 효능을 가진 재조합 단백질인 BMP 7에서 유래하는 15개 아미노산 서열을 가지는 골 형성 펩타이드 개발에 주력해 왔다.

최근에는 골 형성 촉진을 위해 혈관신생을 유도할 수 있는 펩타이드 BFP1, BFP2, BFP3를 꾸준히 개발해 왔으며, 지난 2011년 BFP1을 미국 등 유럽·캐나다·일본·중국·호주 등에 특허등록했다.

한편, 윤택림·정명호 교수는 고관절과 심장혈관중재술 분야에서 각각 국내 최고의 진료업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인 EBS의 ‘명의’에 선정된 바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夜市장이 뜬다’ 1면서 계속

지난달 23일 밤 9시 타이베이 스퀘어의 야시장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곳은 특히 다양한 요리로 유명했다. 인기 먹거리 점포 앞엔 순서를 기다리는 이들의 줄이 50m 이상 생겨났다. 작은 밀가루 피를 기름에 튀겨 만든 파방바오 시아오뎡은 이 시장의 대표 먹거리다.

특히 스린 야시장은 임대료가 저렴해 20~30대 젊은 상인이 많은 게 특징이었다. 이들 덕분에 의류, 신발, 액세서리, 애완용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도 날개 돋친 듯 팔렸다. 타이베이는 전통시장에서 독특한 먹거리와 상품을 판매하며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스린 야시장처럼 광주 전통시장이 관광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송정야시장과

대인시장 등지는 기존 상가를 리모델링해 사용하다 보니 대부분 상가가 비좁다. 일부 상가 앞에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도 이색 풍경이지만 대부분 소비자와 관광객이 머물 곳이 없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또 몇몇 젊은 상인들의 점포에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기존의 상가는 여전히 장사가 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부산 국제시장 등의 경우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이 곳곳에서 음식을 맛보며 걸 수 있지만 광주지역 전통시장의 경우 대표 먹거리가 부족하고 맛집의 수도 적다. 반면, 부산 전통시장의 유명 맛집들이 곳곳에 숨어 있고 오래된 기존 상가들도 영화 등을 통해 명소가 돼 매출이 오르고 있다.

이에 관광객이 편하게 쉬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상인과 젊은 상인들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18 영화 ‘택시 운전사’ 광주 촬영부지 계약

도시공사, 상무소각장 공터 9월 15일까지 임대

한츠페터 취재기...송강호·유해진·류준열 출연

5·18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푸른 눈의 목격자’ 고(故) 위르겐 한츠페터씨의 취재기를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 <광주일보 2월12일자 1면>이 광주에서 촬영된다.

2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영화 제작사인 ㈜더랩프와 공사 소유 광주 서구 상무소각장 인근 공터를 오는 9월15일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곳에는 1980년 당시 광주 급남로 거

리를 재현한 세트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 영화는 외국인 기자(한츠페터)를 태우고 우연히 광주에 간 택시운전사의 이야기가 중심이다. 한츠페터씨는 2003년 제2회 송건호 언론상 수상 당시 “80년 5월 광주까지 태워주고 안내해 준 용감한 택시기사 김사복씨에게 감사한다”고 말한 바 있다.

택시기사 김씨는 길목마다 김문을 벌이던 계엄군을 따돌리고 10톤의 필름이 무사히 광주를 벗어날 때까지 한츠페터씨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송강호가 ‘김사복’ 역을 맡으며 유



송강호 유해진

해진, 류준열 등이 캐스팅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는 영화다’, ‘의형제’, ‘고지전’ 등을 연출한 장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부 고

유당 최상욱 회장의 실의이신 공주이씨 이남 이기순 여사(85세)께서 2016년 5월 2일 오전 11시 20분 노환으로 자택에서 별세 하셨습니다. 기에 알려드립니다.

빈 소	전남대학교병원장례식장 1층 1호
발인일시	2016년 5월 4일 9시
발인장소	전남대학교병원장례식장
장 지	전남무안군청계면서흥리서영

2016년 5월 3일

자 재훈	용훈	철훈
여 영륜	윤정	영진
자부 박미경	최희	김남수
사위 조재식	송주석	이종오
손자 홍석	현석	우석
손녀 현선	현영	정우
외손 조진우	조성우	조영우
이윤수	이지선	송원준
		송정은

홍상 이성열 전 대법관

남화토건주식회사 임직원 임병호
남화개발주식회사 임직원 임병호
KCTV광주방송 임직원 임병호
센트럴저축은행 임직원 임병호
무안테크리클럽 임직원 임병호
한국씨엔티주식회사 임직원 임병호
학교법인 여당학원광주서석주거문화학교 임직원 임병호
재단법인 여당문화재단 임직원 임병호
재단법인 여당문화재단 임직원 임병호

※고인의 뜻을 따라 조의금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며 특히 조화금과 조의금 수액이 없을 때만 조의금이나 향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남화토건총무부(062)520-1051·1053
전남대학교병원장례식장(062)220-6983